

축산업계

소식

폐수처리시설, 잔류물질방지 교육 실시 9월3일부터 12일까지 6개지역에서

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육류중 유해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지방 현지순회교육을 오는 9월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광주, 대구, 부산, 수원, 횡성, 대전에서 실시될 이번 교육은 12월1일부터 축산물 잔류검사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강사와 교육내용은 ○축산배설물처리 및 유해물질 방지대책(김옥경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축산 관련 환경보전시책(환경처 오수관리과장), ○축산배설물 및 이용(유재일 축협과장),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가축위생연구소 박종명 박사), ○육류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한 양축농가 유의사항(서기상 축협 지도부장) 등이다. 교육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 9월 3일 : 광주(전남·북, 광주)
- 9월 4일 : 대구(경북, 대구)
- 9월 5일 : 부산(경남, 부산, 제주)
- 9월 10일 : 수원(서울, 경기, 인천)

○9월 11일 : 횡성(강원)

○9월 12일 : 대전(충남·북, 대전)

제13회 전국축산진흥대회 개최

10월16일, 한국마사회 보조경기장에서

축협중앙회는 제13회 전국축산진흥대회를 오는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과천 한국마사회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우량가축을 선발하여 종축으로 활용 가축개량을 촉진하고, 양축농가의 적정생산 유도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축산진흥대회는 가축품평회,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가축품평회는 한우 48두, 유우 24두, 돼지 16두를 출품하여 총 88두가 품평회를 갖는다. 전시회는 축산물 가공품, 사료, 동물약품, 농기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파행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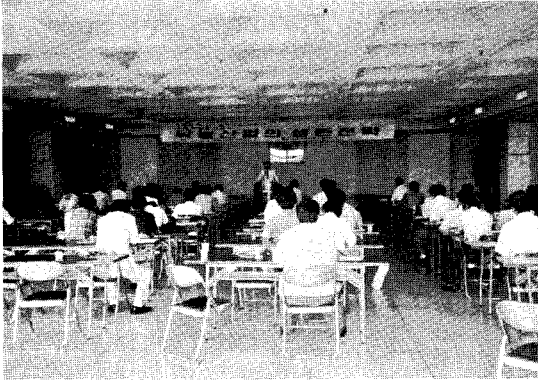
후계자들 농정불만 표출

제2회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가 지난 18일 충남 성환 국립종축원에서 개최되어 2박3일 일정을 채우지 못하는 파행운영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농촌은 뿌리, 도시는 꽃”이라는 주제로 후계자간의 친목,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후계자대회가 장소문제와 비로 인하여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폐막되었다. 당초 서울에서 개최하려던 주최측의 의도와는 달리 장소 허가문제로 옥신각신하다 성환 국립종축원으로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자 후계자들이 농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시켰다.

또 대회기간 중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준비해온 지역특산물 등 3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 최준구 체란분과위원장이 대회개최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다.

“개방낙농의 생존대응”세미나 개최
애그리비즈니스연구회 주최



애그리비즈니스연구회는 지난 24일 서울우유협동조합 강당에서 “개방낙농의 생존대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 회장이 “낙농산업과 애그리비즈니스”, 농림수산부 이수현 계장이 “낙농진흥법 개정방향”, 서울우유조합 이만재 부장이 “집유일원화의 핵심과제”, 유가공협회 장성종 상무가 “유제품 개발과 유통개선”, 충남대 박종수 교수가 “우유, 유제품에 대한 기초정보와 자조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협 선진국 주도 UR협상 거부 입장 표명

한호선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선진국 주도된 UR 협상안을 거부한다고 농협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감축과 수입규제 철폐 등을 목표로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 주도로 제시된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쌀, 보리, 콩, 쇠고기 등 주요농가소득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유화를 절대 반대하며, 농업과 농촌에 획기적인 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식품위생학회 학술심포지엄
축산식품 중심으로 지난 8월29일 개최

한국식품위생학회(회장 심길순)가 주관한 학술심포지엄이 지난 8월29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 등 5개의 연제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에 대비키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축산물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축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연제내용은 ▲최근 일본식품오염의 문제점-다카시 스즈끼(일본국립위생시험소), ▲아플라톡신에 대한 최신 분석법과 규제동향-정덕화(경상대 식품공학과), ▲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이문한(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식품중의 항생제 및 항균제 잔류량조사-류재천(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 식품제조상의 마이크로톡신 잔류와 조사방법-히사시 카미무라(동경도립위생연구소)순으로 발표하였다.

전국 농과대학장 협의회 결성
한인규 학장 초대회장에

전국 32개 농과대학장들은 전국농학계대학장 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에서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압력 등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산물수입 압력에 강력히 대처해줄 것 등 14개항을 요구하였다.

대학교수들의 움직임은 최근의 농업·농촌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지식집단의 목소리라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협의회는 한인규 서울대 농대학장을 초대회장에 선출하였다.